咸安趙氏 宗會報

發行人 : 趙鏞韶
編輯人 : 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29-1
TEL:(055) 585-6788
FAX:(055) 585-6788
부산연락처 : 626-1572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47-9904
FAX: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無盡亭연당일부 道路편입 결사반대

부산국토관리청서 馬山-固城 4차선도로 설계에 포함

父子雙節閣도 철거 될판

執義公후손, 유적지 훼손 비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지방문화재 제158호인 무진정(無盡亭)의 연당(연못)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려 하고있어 집의공(執義公) 후손들은 연당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결사반대 하고 있다. 이 무진정은 어계선조 세째 손자 휘 삼(參·執義公)께서 조선중기 1528년(중종23년)에 목사(牧使)로 계시다가 함안에서 최초로 이곳에 정자(亭子)를 건립하고 1천여평의 연못과 연당을 조성, 4백7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정부가 97년도국고보조등 4억원을 지원하여 연당 보수에 착수하여 98년 완공 하였다.

그런데 최근 부산국토관리청이 마산(馬山)에서 함안 가야를 거처 고성(固城)으로 통하는 4차선 도로를 설계하면서 연못 3분의 1정도가 도로에 편입되도록 한것이다.

후손들은 총칼로 다스린 왜정때도 신작로(新作路)를 내면서 이곳을 우회(迂廻) 했다고 지적하고 하필 유적지를 회손하려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설계되로라면 함안조씨 13충 중의 두분인 무진정선생의 중손 숭지공 휘 준남(俊男)과 현손 참판공 휘 계선(繼先)에게 임금이 부자(父子) 충효의 정려(旌閭)를 사액(賜額)한 부자쌍절각(父子雙節閣)이 철거되고 연못 주변의 3백년생 괴목(槐木=홰나무) 13그루가 잘려 나가야 하는 손실이 따른다는 것이다. 후손들은 문화재인 이곳을 설계한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수 없다면서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 백지화 할것을 진정 하고있다.

한편 지난 1월말 설계가 끝난 뒤 부산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에 부임한 鏞柱(대소헌공파)종원은 설계가 변경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편입을 결사반대하며 내건 플래카드

參判公派 파보발간 착수

門會서 편찬발기위원회 구성

옥봉공(玉峰公) 휘 순(舜)을 파조(派祖)로 하는 참판공파(參判公派)에서 파보(派譜)를 편찬키로 합의 했다 한다.

즉 지난 4월24일(음력 4월1일) 晋州 옥봉정사(玉峰精舍) 향례에 참석 했던 많은 후손들이 전날 밤 문회(門會)를 개최하고 파보 발간에 모두 동의하고 참판공파 파보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다.

어계(漁溪)선조의 장손(長孫)인 휘 舜의 후손들은 1979년 파보를 발간 했으나 선조의 행적(行蹟)에 누락된 곳이 있어 보완이 불가피 하고 또 당시 통신,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수단(收單)에 누락된 자손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보책(譜冊)을 모시지 못한 세대수가 많고 지난 23년 동안 많은 후손들이 출생 하였을 뿐 아니라 핵가족화로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대별 파보를 갖겠다는 집안이 많아 다시 편찬 해야 할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판공파 후손들은 수단과 보책을 가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선출된 발기인 명단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고문=鏞九, 萬濟, 東濟(在日本) ▲위원장=在宇(부산626-8941)、鏞河 ▲위원=顯祚(서울 995-7892)、鏞沼、顯宗(경기도)、東濟、尙來(부산 646-8448)、舜欽(대구지역)、鍾來(울산지역)、世濟、在奉(파주지역 02-3444-0878)、顯喆(진주 752-1830)、昌濟(성주지역)、顯台(청도지역)、鏞燮(여수 663-1336)

宗會報협찬금저조

올해 2기분 74건에 3백 40만원 불과

종회보 협찬금이 계속 답지되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저조한 실정으로 종회보가 15일 늦게 발행 되었다.

협찬금 2기분(5월11일~8월20일)은 74건에 3백40만원이 접수되어 금년들어 모두 4백20건에 1천5백67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에 광고 협찬금 3백50만원 등으로 올해 3회째 발행 할수 있었다.

이번 협찬금은 부산청년회 顯判회장과 倉濟부회장이 각각 30만원씩을 협찬하였고 정산의 漢奎종원,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鏞岩종원, 함안 법수면의 鏞郁종원, 鏞望울산화수회장, 鏞完전 함양화수회장,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洪來종원、부산북성연맹 회장인 度濟종원이 각각 10만원씩을 보내주셨고 군북화수회장 快濟종원이 선적지 순례를 마치고 절약한 경비 10만원과 자신의 몫 5만원등 15만원을 보내주었다.

한편 鏞韶종사운영회 회장의 아들 3형제(完濟=한국철강(주)상무이사, 任濟=동아대학교교수, 軒濟=서울 가우치과병원 원장)가 각각 10만원씩을 보내왔다.

漁溪先生 묘소의 진입로

咸安郡서 확장공사 착수

함안군 당국은 『생육신 정절공 어계선생(漁溪先生) 묘소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지난 7월6일 착공했다 한다.

군당국에 의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진입하여 법수면 강주리 국계마을 앞까지 조성된 2차선 도로를 어계선조 묘소 입구까지 연장하는 공사이다.

군당국은 토지보상비등 예산관계로 올해 1차공사로 연장 3백미터만 축조하고, 내년에 2차공사로 다시 3백미터를 계속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공사로 우리 종토(宗土) 1백45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었다.

宗告

『漁溪先生集』重刊 예정 필요한 宗員 신청 접수

종사운영회가 1992년 3월 12대조 생육신 어계선조의 문집(文集)「어계선생집(漁溪先生集)」번역본을 중간(重刊)하여 전국 후손들에게 배포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중간위원회는 이 책 제작을 대전의 대경출판사에 맡겨 3백74페이지 양장본 3천권을 만들어 전국화수회별, 문중별, 개인별로 주문을 받아 반질하였습니다. 몇년뒤 뒤늦게 안 후손들이 문집을 구입하겠다고 찾았지만 품절이 되어 아쉽게도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여러 곳의 후손들이 재판(再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문받아 제작할 것을 구상중입니다. 문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집안이나 화수회는 종사운영회에 연락해 주시면 주문권수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권에 2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西山書院 理事陣 대폭 확대

宗員들의 자발적 참여 바라

사단법인 서산서원(西山書院)의 법인 기능을 부활 시키기 위해 지난 5월15일 이사장(理事長)에 추대된 一濟전국회의원은 새로운 이사진(理事陣)을 확대 개편 함에 있어 많은 일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서산서원은 어계선조를 비롯한 생육신의 충절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이를 더욱 계승 발전하여 길이 전수 하고자 뜻있는 일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一濟이사장은 음력 9월9일 국천제(菊薦祭) 행사에 앞서 이사진을 구성하여 이번 행사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참여하고싶은 일가들은 종사운영회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咸安趙氏 宗事運營會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咸安趙氏南溪公後府事公派宗會

宗會長 趙 鷹 來　副會長 趙 在 烈
總 務 趙 顯 龍　監 事 趙 明 來
監 事 趙 顯 煥　運營委員 趙 三 來 외 10명

충남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803번지 ☎ 041) 853-7702, H.P:011-9402-7702

道谷公묘역 案內碑 건립

투철한 崇祖정신 표출

他派종원들 감탄, 칭찬자자

참의공파(參議公派)종사운영회는 최근 참의공파 파조(派祖) 도곡공(道谷公)휘 익도(益道)의 묘소가 있는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묘역(墓域)입구에 묘소 위치와 선조의 행적이 기록된 안내비(案內碑)를 세워 타파(他派)의 귀감이 되고있다.

▲도곡공 묘역에 건립된 안내비

이 비는 부산의 相來(본회 전예부장)종원이 글을 짓고 쓴 것으로 85㎝의 돌자대 위에 폭 1m20㎝, 높이 80㎝, 돌두께 27㎝, 장방형으로 제작되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선산(先山) 가장 높은 자리는 문천군수공 휘 숙(䎘) 양위분의 묘소이고 그 아래가 참의공 휘 익도(益道) 양위분을 모신 자리이다」 그 아래에 참의공 둘째 아들들의 묘가 있다고 기록했고 이 묘들은 중현조(中顯祖) 어계(漁溪)선조와의 세계(世系)를 상세히 기록해 이 묘역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수있게 되어있다.

지난 4월14일 삼충사(三忠祠) 향례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곳은 이괄(李适)의 난(亂)을 평정하여 진무이등원종공신(振武二等原從功臣)에 녹권(錄券)된 함안조씨 13충의 한분인 參議公의 묘역이다.

大笑軒선생 기제사 낮시간으로 변경

음8월18일 黃巖祠 준공식과 함께

대소헌공파종사회(회장 一濟) 임원회가 지난 8월9일 함안 종사운영회 사무실에서 각 분파(分派) 부회장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一濟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소헌선조의 위패가 모셔진 함양군 서하면의 황암사(黃巖祠)가 오는 음력 8월18일 준공식 겸 추모행사가 있어 후손들의 숙원이 이루어졌지만 대소헌 후손들의 몫을 이행하지 못해 유감이라 지적하고 「준공식이 지난뒤 우리 힘을 모아 선조의 명예를 더욱 빛내야 할것이라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소헌선조의 기제사(불천위)를 낮시간으로 옮겨, 황암사 추모제가 끝난 뒤 소남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제사를 봉향(奉享)키로 결의했다.

耐軒公齋舍 永慕齋 중건 상량식

공사비 부족으로 애로 많아

속보=경북 구미시 인동(仁同)의 내헌공(耐軒公) 휘 연(淵)의 재실 영모재(永慕齋) 중건 상량식이 지난 6월12일 서울, 부산, 청송, 대구등 후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헌관에는 서울의 民濟종원이, 상량문 고유문은 鏞韶 종사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8월20일 현재 재실 몸체와 대문체에 기와를 얹고 외부 공사로는 계단을 만들고 있지만 후손들의 헌성금이 제때 조달이 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 내헌공 후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가져주기 바라고 있다 한다.

한편 준공은 묘사때인 음력 10월5일 있을 예정이라 한다. 헌성금을 접수 할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농협대산지소 805014-52-107141 조성도)

4백년만에 直系先祖 찾아

南溪公 여섯째손자 思道후손임을 확인

公州에 사는 鷹來종원

선대(先代)의 계보(系譜)등 기록이 소실(燒失)되어 확실한 근본(根本)을 모르는채 오래동안 타파(他派)에 등재되었던 어느 일가들이 서기 1664년에 발간된 갑진보(甲辰譜)에서 근원(根源)을 찾아 4백년만에 직계선조(先祖)를 찾게 되었다고 종사운영회에 알려왔다.

이들은 7년동안 고증(考證)될만한 자료를 찾아 헤매던 끝에 남계공(南溪公) 여섯째 손자 휘 경(境)의 장남 思道의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계공의 외동아들 하구정공(下鷗亭公)께서 여섯 아들을 두셨는데 막내아들 境字가 아들 삼형제를 두다. 장남 휘 思道, 차남 휘 存道, 3남이 어모공(禦侮公) 휘 善道(13충의 한분)이다.

장남과 차남이 18세때 집안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다가 (公州 청룡에 이르러, 어느 농가에 유숙 하면서 잠시 농사일을 도왔더니 주인 李氏(전주이씨 효령대군 후손)가 두형제를 오래 머물도록 권유하였으나 동생 휘 存道는 서울로 떠나고 형은 이곳에서 李氏의 사위가 되고 30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큰 공을 세웠고(公州대학교 소장 선무원종공신록에 기록) 아들대에(代)와서 公州郡 牛城面 木泉里에서 수백년을 살아 왔다는 것이다. 근본을 몰라도 족보에 등재돼야 된다면서 선대 어른들이 다른파에 등재케 했다.

7년전 서울화수회 간부 한분이 「당신들의 파조 휘 思道는 南溪公 증손자라는 언질을 주어 그 뒤 갑진보(甲辰譜)와 무오보(戊午譜)에서 사실을 확인 할수 있었다 한다. 그때부터 소문중회의를 여러차례 열고 선조의 계씨(季氏=동생)되시는 남계공후 어모공파의 鏞七(전 서울화수회장) 문장을 찾아 묵곡실기(默谷實記)로 사실을 확인하고 어모공파에서도 인정하여 꿈에도 그리던 선조를 찾은 것이다.

충남 公州에 뿌리를 내린 이들은 오랜 기간의 확인 절차를 밟은뒤 의탁했던 파의종손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거두어 주신 은혜에 사의를 표 한다는 글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휘 思道선조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추증된것에 따라 남계공후부사공파(南溪公後府事公派)로 파명(派名)을 지었다 한다.

이들 후손들은 公州를 비롯한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약 2백세대가 살고있다 한다.

한편 공주에 거주하는 鷹來종회장은 함안의 선대(先代) 묘사에 한번도 참례한 일이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올해 부터는 공주를 비롯한 충청도에 거주하는 일가들을 대동하여 선대 묘사는 물론 남계공(南溪公) 선조의 묘사에 참석하여 그동안 방황했던 한(恨)을 참배로 풀겠다고 말했다.

6년간 모두8억9천만원

해남장학회 올해하반기 장학금 5천5백만원 전달

해남장학회(이사장 趙盛濟) 2천1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8월17일 함안 가야농협 2층회의실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거행되었다.

이날 一濟이사장대행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趙相訓군등 52명에게 5천5백30만원의 장학금과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회에 5백만원, 함안중학교 축구부 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盛濟이사장이 1996년도 해남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6년동안의 목적사업 내역을 보면 대학생 6백2명에게 6억3천3백10만원을 중·고생 45명에게 2천90만원,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아동 초·중·고생 5백6명에게 1억5천1백80만원, 향토사 연구비로 3천7백80만원, 교육관련 지원비로 3천6백34만원, 체육특기생 62명에 1천3백만원등 합계 8억9천2백94만원을 지급했다.

釜山百世會정총

鏞濟종원, 會長선임

지난 6월2일 부산 百世會 정기총회가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동양가든에서 개최되어 鏞濟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鏞濟, 부회장=健濟, 公濟, 品來 ▲감사=武濟, 品來 ▲총무=鏞冀 ▲재무=鏞範

壬亂때의 朝鮮武將 후손들 초청

日本의 후손들이 大阪城에서 친선회 제의

한국의 국제교류재단과 일본의 한·일 문화교류기금 재단이 임진왜란 4백9주년을 맞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조선(朝鮮)의 무장(武將) 후손들을 일본으로 초청(자기부담)하여 「오오사까죠오」(大阪城)에서 양국 무장 후손들이 친선회를 갖는다고 함조(咸趙)가운데 해당되는 후손들에게 전해 달라고 동지문을 종사운영회에 보내왔다.

지난 1999년 10월21일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한일양국 무장후손친선회」를 갖고 옛날 선대(先代)의 감정을 후손들은 용서하는 차원에서 친선을 다진 바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는 10월22일 하오2시 임진왜란을 도발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이가 축성한 大阪城에서 친선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관광도 있다 한다. 함안조씨 가운데 임란때 전사하셨거나 전부에 참여 하신분의 후손들 가운데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마산 (055)252-4493 조중화씨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함안조씨 13충 가운데 임란때 전사한 선조들은 다음과 같다. ▲참판공 휘 붕(鵬) ▲대소헌공 휘 종도(宗道) ▲승지공 휘 준남(俊男) ▲판서공 휘 신도(信道) ▲감찰공 휘 민도(敏道) ▲고성공 휘 응도(凝道)

咸安趙氏 節度公後 仁溪公派 宗會

會長人事

親愛하는 仁溪公 후손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많은 일가님들이 모여 성황리에 宗會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뢰옵기는 不足한 제가 2001년 宗會長의 직책을 맡게 되어 여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일가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지난 5月 26日에 직전 宗會長 鏞敏 族位님과 各地域 任員들이 모여 인계 引受를 받아 今年度 事業計劃을 세웠습니다.

今年度에도 직전 宗會長任의 숙원이던 宗財 모금과 會報를 계속 발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 본회에 書記와 財務를 추가 선정 총무를 도와 임시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종무위원 선출은 임원단과 구 종무위원들이 모여 빠른 시일안에 선출 하겠습니다.

여러 일가님들의 특별한 협조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13일

- 今年度 事業
  - ①基金배가(5,000만원) ②회보의 정기발간 ③각 지회의 활성화
- 宗會任員名單
  - 회장 : 趙融濟 • 부회장 : 호제, 奉吉, 亨來, 광일, 평길, 강래 • 총무 : 승래
  - 부총무 : 은래 • 서기 : 기현 • 재무 : 준제 • 유사 : 회제

선조의 얼 ㉕

咸安趙氏 族譜 創刊 紀績碑文

함안조씨 족보를 창간하신 세 어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종사운영회가 지난 3월25일 선조님들이 출생하신 군북면 원북동 입구에 「함안조씨족보창간기적비」를 세웠다. 비문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민족문화추진회 회장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李佑成박사가 지었다. 이번 26호 「선조의 얼」에 비문 전문을 게재키로 했다.

▲후손들의 정성으로 수립한 함안조씨 족보창간 기적비

紀績碑로서는 咸安趙氏가 最初 河·柳·尹氏의 族譜까지도 편찬

高麗 후기로부터 역사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姓氏集團이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宗法的 이념의 형성과 더불어 族的 유대와 질서가 확고해지면서 世系와 分派를 밝히려는 族譜가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 家門이 昌盛하고 子孫이 蕃衍한 姓氏集團이 먼저 族譜를 내게 되었는데 朝鮮王朝 전기에 나온 安東 權氏, 文化 柳氏 등의 족보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런데 위의 權氏, 柳氏 등과 함께 朝鮮王朝 전기에 咸安趙氏의 족보가 이미 편찬되었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즉 監察 趙簡卿公이 趙氏의 족보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中宗 二十一年 丙戌, 곧 서기 一五二六년경이었다. 監察公은 일찍부터 孝友操行이 著聞하여 朝廷에서 특별히 관직을 제수했는데 내직으로 司憲府監察이 두차례요, 외직으로 丹城, 安義, 禮安 등 縣監으로 부임하여 가는 곳마다 惠政을 베풀었다. 公은 어려서 부모를 여읜 痛恨에서 그 孝心의 溯及으로 追遠報本의 정성이 남다른바 있어 족보를 만들어 선대의 源流를 파악하고 자손의 宗支關係를 명백히 하려 하였다. 公은 그의 本宗인 趙氏뿐 아니라 母姓인 晋州 河氏와 祖母姓인 晋州 柳氏 그리고 外祖母姓인 坡平 尹氏의 족보를 아울러 만들었다. 河, 柳, 尹 三姓의 族譜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公은 참으로 우리나라 譜學史에 특기할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교통연락의 불편과 기록의 미비등 온갖 제약으로 인하여 이 족보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다.

監察公이 만든 舊譜를 모방 澗松先生이 編修, 坡西公이 刊行

그뒤 近百年을 지나 澗松 趙任道 선생에 이르러 趙氏의 족보는 一大結節點을 이룩하였다. 澗松先生은 少時에 진작 스스로 옛 聖賢을 배우기로 기약하여 수양과 硏鑽에 精進하는 한편 鄭寒岡 張旅軒 양 선생과의 從遊를 통하여 학문과 덕행이 영남일대에 높이 推仰되었다. 朝廷의 徵召가 끊이지 않아 仁祖朝에 재차 大君師傅으로 그리고 孝宗朝에 工曹佐郞으로 除授되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顯宗朝에 王이 직접 宣諭를 보내고 米穀을 優給하여 欽敬의 뜻을 보이자 선생은 疏를 올려 治道를 논하였고 王은 嘉納의 批를 내리기까지 했으나 선생은 끝까지 山林에 앉아 鄕黨의 敎化와 敦宗睦族의 倫理實踐에 힘을 다하였다. 先生은 원래 족보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겨우 三十二세때에 監察公의 舊譜를 바탕으로 누락된 부분은 보완하고 繁雜한 것은 刪繁하여 새로운 體例를 마련하였다. 특히 咸陽의 尙書公 子孫들과 忠淸 金羅 및 濟州의 同宗들을 廣汎히 深聞하고 가능한 한 新增으로 添入한 것을 계획하였다. 선생은 族譜序를 지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뒷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體得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랐다. 그러나 당시 여건하의 제반 어려운 사정은 한사람의 在野學者로서의 선생의 개인적 처지에서 浩瀚한 族譜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坡西 趙遂源公에 이르러 趙氏의 族譜가 일차적으로 완성을 보아 최초의 刊本이 나오게 되었다. 坡西公은 近畿地方에서 생장하여 일찍 과거에 뜻을 버리고 硏學에 전념했는데 天資가 敦重하고 器局이 峻整하여 사람들이 非義로 접할수 없었다. 孝宗朝에 童蒙敎官이 되고 顯宗朝에 中央各司職을 거쳐 高靈縣監 臨陂縣令 高陽郡守등 外職을 역임한 뒤에 侍從臣父年七十으로 通政에 僉知가 되었으며 다시 嘉善으로 同知의 직함을 받았다. 公은 澗松先生의 二十餘年 年下로서 일찍이 澗松의 族譜序文을 읽고 족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高靈縣監에 부임하자 咸安과는 近邑으로 여러 종친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또 澗松의 寓所와 가까운 곳이라 적이 기뻐하여 그 기회에 족보를 완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때마침 尙書公派의 世乘을 入手하여 그것을 계기로 咸安과 京鄕各地에서 신을 띄워 더욱 자료를 수집하여 反復檢討한 끝에 舊譜에 添載하였다. 수개월이 걸려 끝을 맺고서 澗松先生에게 알을 根을 보내어 자세히 商確하고 上梓하려 하였는데 출판도 하기 전에 澗松의 計音이 來到한 것이다. 公은 鳴乎痛哉를 부르면서 자기 사정에 의하여 몇가지 아쉬움을 남겨둔 체 출판을 서둘렀다. 이것이 顯宗五年 西紀 一六六四年의 甲辰譜이다. 刊役이 끝난 뒤에 그 木板은 漁溪 先祖의 祠堂 아래 옮겨 두고 咸安宗親들의 善護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族譜내용의 未洽한 점은 後日의 繼修를 기대하였다. 이리하여 英祖 十四年 一七三八年의 戊午譜와 正祖 四年 一七八○年의 庚子譜 및 純祖 二十五年 一八二五年의 乙酉譜가 나왔다. 今年 二○○一年 一月에 趙鏞韶 趙英濟 兩氏가 서울로 佑成을 찾아와서 趙氏族譜의 유래를 말하고 監察公, 澗松公, 坡西公 세분 조상님의 業績을 기리기 위해 紀績碑를 세워 만인에게 알리려 한다면서 佑成에게 碑文을 請해 왔다. 佑成은 趙氏와의 累代姻戚宿緣을 생각하여 이 글을 草하고 다시 짧은 銘辭를 덧붙인다.

赫赫한 金羅名閥 온나라가 일컬으니
거룩하신 先祖先靈 積德의 遺蔭이라
그 뿌리 그 가지 譜牒속에 瞭然하니
세분 큰 어른의 빛나는 功績일세.
오늘다 새千年 百萬后손들
힘쓰고 뜻펼쳐 앞날 더욱 개척해 가세.

二千一年 三月 驚蟄날에
大韓民國 學術院會員 民族文化推進會長 成均館大學校 名譽敎授
文學博士 驪州 李佑成 삼가 지음
宗後孫 英濟 삼가 씀

保寧市에서 花樹會 조직

회장에 현식종원 月例會에서 愛族다져

일가들이 많이 살지 않는 충남 보령시(保寧市)에서 지난 2월중순경 일가들 20여세대가 모여 선조의 얼을 계승발전 시키고 상부상조와 화합을 다지는 미니 화수회를 만들었다고 종사운영회에 알려왔다.

이날 종원들은 시내서 한양회관을 경영하는 명제종원댁에 모여 족애(族愛)를 다지고 선조의 고향 함안(咸安)에 내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다짐 했다한다.

이날 회장에 법무사인 현식종원을, 총무에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용천종원을 선출하여 매월 월례회를 갖기로 하고 일가들을 발굴하여 동참시키도록 했다.

宗會長에 融濟종원

谷城 仁溪公派종회 개최

절도공(節度公)후 곡성(谷城) 仁溪公派 종회가 지난 4월5일(청명 한식날) 개최되어 종회회장에 부산에서 조황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融濟(69)종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세장산(世葬山)에서 절도공 휘 수천(壽千)의 배위 全義李氏를 비롯하여 19대 선조의 춘향대제(春享大祭)를 마친 다음 영류재(永類齋)에서 후손 1백여명이 참석하여 1년동안 문중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종회를 가졌다.

이날 鏞敏직전회장의 고사(固辭)로 후임 회장에 融濟회장이 임기 2년의 회장직을 맡게된 것이다.

江華島에 家族墓 조성

부산·在奎종원등

부산에 거주하는 고죽재공(孤竹齋公) 휘 안경(安卿) 후손 在奎(75)종원이 종손 鏞燁종원과 같이 북한과 접경지역인 강화도(江華島) 여러곳에 산재한 선조의 묘소를 지난해 12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가족묘를 조성했다고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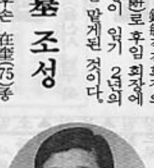
이들 선조는 1천5백년경에 해주(海州)에서 강화로 옮겨 16대부터 28대까지 살아 오면서 숙원인 가족묘지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江原會館 개관식 宣濟종원이 참석

趙宣濟(仁溪公派)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7월10일 공제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복지시설 마련을 위해 춘천시에 건립한 강원회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根濟종원 무투표 당선

咸安畜協 조합장선거



함안 축협조합장 趙根濟(50·節度公派)종원이 임기 4년의 14대 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어 연임하게 되었다.

根濟종원은 함안 산인면 용곡출신으로 축협감사와 부산, 경남우유협동조합 대의원을 거치는등 축산업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녹조근정 훈장 定奎종원 수상

경남도청 관광진흥과장(서기관)으로 재직중인 趙定奎 종원(54·節度公派)이 지난해 경남도청 실업대책과장직에 근무하면서 실업대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정부의 실적평가결과 경상남도가 전국 최우수상도(1위)로 결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 공직에서 최고상인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趙定奎 종원은 경남 사천 용현출신이다.

부 음

▲지난 5월26일(음력 4월4일) 澗松堂公 종손 鏞稷옹이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85세. 鏞稷종손은 대구 교남학교(현 大倫中·高校)를 졸업하여 재단법인 남지학원 상무이사, 남지원예협동조합장, 靈山향교의 장의를 역임했고, 靈山향교에서 처사(處士)로 개명정(改銘旌)했다 한다.

▲지난 8월1일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성안에 거주하셨으며 문중의 원로이신 性出(同知公派)옹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性出옹은 문중대소사에 지팡이를 짚고도 빠지는 일이 없이 참석하는등 위선(爲先)에 특별한 분이였다.

美國서도 「뿌리찾기」 바람

祖上에 관심 가진 사람은 1억명

미국(美國)에서도 요즘 「뿌리찾기」 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40~50대에 접어 들면서 자신이 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98년 11월 「제퍼슨」 미국 전대통령과 흑인 노예인 「샐리 헤밍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 DNA검사를 받았고 7백여명의 「제퍼슨」종친회를 비롯하여 유명한 귀족가문의 「메이플라워」 후손들의 모임등 수백개의 종친회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족보(族譜)에 대한 관심을 중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족보 찾기란 「오렌지카운티」의 중산층(中産層) 이상의 호사가(豪奢家)들만의 관심을 갖는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미국인들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모르고 살수 없다」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았다고 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적(大衆的)인 것이 되었다 한다. 더구나 온갖 인종의 이민자(移民者)들이 뒤죽박죽인 미국에서 말이다.

지난 95년 미국의 성인(成人) 40%이상인 1억 1천3백만명이 족보에 대해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5~64세 성인중에서 그 수치를 50%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억명 이상이 실제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어떤 사람은 미국 이민 오기전에 조상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모국을 방문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족보 찾기 대중화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한 민족일까

〈外紙에서〉

釜山青年會 先蹟地 답사기

趙倉濟 〈부산청년회 수석부회장〉

大笑軒先生의 壬亂抗爭에 머리숙여
李成桂에 抗命한 德谷先生 유지 감명
西山書院·鷹巖齋·無盡亭등도 순례

찌는듯이 무덥던 지난 7월22일 부산청년회가 2천1년 선적지(先蹟地) 답방행사를 가졌다. 이날 일행 73명은 2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먼저 서기 1597년 음력 8월 18일 정유재란때 왜적에 의해 순절하신 대소헌선생(大笑軒先生)의 유적지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이 있는 황암사(黃巖祠)를 향해 떠났다. 우리들을 안내 해 주실 종사운영회 英濟(부산청년회 초대회장) 부회장이 이날 답사 할 유적지 여러곳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초행길인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전 11시30분께 현지에 도착한 일행에게 영제 부회장의 실감 나는 설명이 있었다. 높다란 황암사 사당 앞에서 지형(地形)을 살펴보니 당시 왜적이 황석산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호남(湖南)쪽으로 진격 못할 정도로 골짝이가 좁았고 사적(事蹟) 322호로 지정되어 복원(復元)중인 성곽(城郭) 부근에 왜병들에게 던졌다는 강돌(몽돌)이 지금도 뒹굴고 있다는 설명에 해발 1천1백90m 높은 산까지 강돌을 운반한 선조들의 저항심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정유재란 당시 대소헌 선생은 왜적 흑전장전(黑田長政)의 칼에 쓰러지셨다는 설명이 끝난뒤 준비해 간 제물을 차려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었다.

1998년 착공한 황암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음력 8월 18일 준공식겸 4백4주년 추모 행사를 갖는다 했다.

일행은 다음 행선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덕곡선생(德谷先生)의 사당 교수정을 찾았다. 지방문화재 76호인 이곳에서 대기중이던 來洪종손으로부터 선생의 행적(行績)을 들었다. 우리 함안조씨 가문에 고려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시고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하자 이를 반대하신 두문동(杜門洞) 72현(賢)의 한분이란 설명을 듣고 사당을 참배 한 뒤 시간에 쫓겨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鏞燮사무국장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생육신 여섯분의 행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참배의 홀(笏)을 불러 주셨다. 일행은 쉬지도 못하고 법수면 강주리 어계(漁溪)선조의 산소에 참배 했다. 英濟부회장의 설명에 비해 산소 석물(石物)이 빈약하다고 지적하자 『후손도 많고 재정도 있지만 이곳이 매(鷹)의 몸체인데 무거운 돌을 얹어 매가 날지 못하면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지…』

일행은 산능성을 넘어가니 95년도 새로 지었다는 응암재(鷹巖齋)가 나타났다. 정말 잘지은 건물 같았다. 본부장을 맡았던 영제부회장의 설명이 끝난뒤 건물 옆에 당시 헌성금을 낸 분들의 와비(臥碑)가 있었는데 돌에 새긴 이름이 5백명은 넘어 보였다. 가까운 집안 형님들의 이름도 있어 반가웠다. 문중 일은 거의 후손들의 헌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재실과 와비는 관리만 잘하면 수명이 7백년은 넘게 갈 것이라 했다.

일행은 예정대로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어계선조의 셋째손자 집의공(執義公)선생이 세우셨다는 무진정(無盡亭)을 방문했다. 이곳을 설명 해 주시기 위해 함안군화수회 相來회장이 기다리고 계셨다. 相來회장은 집의공 선조께서 이곳에 정자(亭子)를 1528년에 세웠다는 것과 1978년 지방문화재 1백58호로 지정된 이야기등 상세히 해주셨는데 당국에서 하필 이 귀한 문화재를 훼손시키면서 도로를 내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회원들은 이날 답사한 선대의 유적지가 처음 가보는 곳으로 뜻있는 하루였다면서 많은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깊이 기억 될것으로 확신한다.

▲함양군 서하면 황암사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

宗會報 協贊金 감사합니다

▲趙倉濟(釜山青年會副會長·大成鋼鐵)=30만원 ▲趙顯判(釜山青年會會長·대동화학)=30만원 ▲趙鏞郁(咸安法守面江洲里·本會理事)=10만원 ▲趙鏞完(前 咸陽花樹會會長)=10만원 ▲趙鏞岩(大邱수성구 수성3가·운수업)=10만원 ▲趙鏞夏(蔚山花樹會會長)=10만원 ▲趙度濟(한국권투위원회부산경남대표)=10만원 ▲趙完濟(한국철강(주)상무이사)=10만원 ▲趙任濟(東亞大學校敎授)=10만원 ▲趙軒濟(서울江南 가우치과병원 원장)=10만원 ▲趙洪來(행정자치부소방국방호과)=10만원 ▲慶山花樹會(會長 趙漢奎)=10만원 ▲咸安郡北面花樹會(회장 趙快濟)=10만원

함안

▲趙根濟(군북면우계·본회부회장)=2만원 ▲조홍제(군북면 안도마을)=3만원 ▲조용원(법수면 윤외리)=3만원 ▲조청제(군북면 소포리)=3만원 ▲조현태(가야읍 도항리도동)=2만원 ▲趙快濟(군북면 화수회장)=5만원 ▲趙昶來(군북면 월촌리)=2만원 ▲조권래(군북면 국곡리)=2만원 ▲趙海濟(군북면 오곡·西山書堂유사)=2만원 ▲조숙래(군북면 사촌리)=2만원 ▲趙顯準(군북면 신창·본회이사)=3만원 ▲조혁래(군북면 중암리)=1만원 ▲조용화(군북면 신촌리)=1만원 ▲趙鏞洪(산인면 모곡리)=2만원 ▲趙孝濟(伽倻邑 倹岩里)=5만원 ▲조경제(법수면사무소 재무계장)=3만원

부산

▲趙定奎(경남도청 관광진흥과장)=5만원 ▲趙文來(북구 구포3동)=2만원 ▲조용섭(民樂洞·안동현물)=3만원 ▲조재호(釜山情報大學校 敎授)=5만원 ▲조이식(남구 대연1동)=1만원 ▲趙玉來(북구 화명동)=2만원 ▲조우일(개금동 새마을금고에서 송금)=2만원

서울·경기도

▲趙在澈(海德스틸(株) 대표이사)=5만원 ▲趙顯宣(경기 안성군 고삼농협 조합장)=5만원 ▲趙原徹(順·경기 과천시 별양동)=2만원 ▲趙晋茂(順·서울 서초구 잠원동)=2만원 ▲趙仁濟(수원시 팔달구 매탄동)=3만원 ▲趙貞濟(江南區 論峴洞 조정제변리사)=3만원 ▲趙璇濟(서울시 종로구 홍지동)=5만원 ▲李淑子(平和銀行 방화동 지점서 송금)=3만원 ▲조현영(韓一建設(株) 副社長)=5만원

경남

▲趙道濟(경남은행 서부본부 차장)=2만원 ▲조창기(진해시 덕산동)=2만원 ▲조경제(김해시 진례면 평지리)=3만원 ▲趙顯郁(거창군 거창읍 중앙리)=2만원 ▲趙昌來(昌原市조창래법률사무소 변호사)=5만원 ▲조성문(마산시 자산동)=2만원 ▲조동제(마산시 산호동)=3만원 ▲趙鏞祚(창녕군 대지면 양파시험장장)=5만원 ▲조성래(창원시 반지동)=3만원 ▲조성래(산청군 산장면)=2만원 ▲趙洪濟(양산시·釜山女大근무)=2만원 ▲조용균(통영시 욕지면 노대리)=3만원 ▲조형규(사천시 곤양면 성내리)=2만원

대구·경북

▲趙鏞華(대구시 남구 봉덕동)=2만원 ▲趙聖來(浦項市 北區 上元洞)=3만원 ▲趙鏞兌(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2만원 ▲趙尙濟(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3만원 ▲趙泰俊(청송군 현서면 구산리)=2만원 ▲趙鏞弼(청송군 현동면 본회부회장)=5만원 ▲조웅제(청송군 현동면 인지리)=1만원 ▲조양래(포항시 남구 장기면)=2만원 ▲조경태(대구시 수성구 범어동)=1만원 ▲조용소(포항시 연일읍 괴정리)=2만원 ▲조병찬(青松郡 縣東面)=1만원 ▲趙舜欽(대구시 북구 태전동)=2만원 ▲조현칠(서대구 우체국에서 송금)=1만원 ▲趙玟奎(수성구 파동)=3만원

울산

▲조용원(울산시 남구 옥동)=5만원

제주

▲趙明哲(來·4·3사건 실무위원장·수필가)=5만원 〈8월 20일 현재〉

종회보 협찬금 내실 계좌번호

우 체 국 : 600833-31-000348
국민은행 : 106-21-0494-113 조 영 제
농 협 : 919-02-049363
※ 죄송하오나 송금하신 후 051-626-1572/011-875-1572로 연락바랍니다. 주소나 직장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宗員動靜

▲趙鏞濬종원=6월 1일 朝鮮日報 사장실 독자부장으로 ▲趙顯國종원=6월 8일 교보생명(주) 부자사업본부장으로 ▲趙顯淳종원=6월 8일 光州地檢 木浦支廳 부장검사로 ▲趙俊雄(吉濟)종원=6월 22일 仁川地檢 檢事長사임, 서울 瑞草洞에서 변호사 개업 ▲趙鏞燮종원=6월 30일 蔚山경찰청 보안과장으로 ▲趙源奎종원=7월 2일 통일부 정보분석국 사회문화담당관으로 ▲趙鏞天종원=7월 2일 외교부 동북아 2과장으로 ▲조강래종원=7월 2일 한국해양연구원 수석검사역으로 ▲趙博來종원=7월 3일 馬山市廳 경제산업국장으로 ▲趙二濟종원=7월 4일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농림해양수산위 입법조사관으로 ▲趙鏞黨종원=7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趙大顯종원=7월 7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趙顯權종원=7월 26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으로 ▲趙龍來종원=7월 30일 아이넨스 닷컴(주)理事로 ▲趙道濟종원=8월 1일 慶南銀行 西部本部次長으로 ▲趙在允종원=8월 22일 釜山銀行 산내지점장으로 ▲조양래종원=8월 23일 마산용마 초등학교장으로 ▲조현덕종원=8월 23일 마산교육청 중등과장으로

서산서원 참배

▲6월3일=대구 락금화수회 조인제회장 인솔로 52명이 참배. ▲6월11일=부산화수회 해운대지회 趙辰守(奎)회장등 22명이 참배. ▲7월8일=安東市廳 함안조씨친목회 홍래회장등 35명이 참배. ▲7월22일=함안조씨 釜山청년회 顯判회장등 73명이 참배. ▲8월4일=경기도 성남시 어모공파 조이래지사장외 8명이 참배.

자동차 부품 주조

起元金屬株式會社

代表理事 趙 銓 來 (大笑軒公派)

회사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7번지 ☎(055) 345-3651~2 FAX : (055) 345-3730 H.P : 011-866-3651